

“첫 통합시대 여는 한 표...지역 미래 내 손으로”

6·3지방선거 사전투표 현장

“첫 통합의 시대, 새 얼굴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야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5월 29~30일 광주지역 사전투표소에는 이른 새벽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출근길 직장인부터 장년층, 노년층까지 시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지난 5월30일 오전 5시50분 광주 서구 화정4동 사전투표소(금호타운2차아파트 경로당). 투표 시작 전부터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투표소 앞은 분주한 분위기를 보였다.

오전 6시 정각 선거관리자가 투표 개시를 알리자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제시한 뒤 현장에서 출력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향했다. 투표소 안에서는 관내·관외 선거인이 구분돼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관외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황토색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했다. 선거사무원과 정당별 참관인들은 투표 과정을 꼼꼼히 지켜봤다.

이날 첫 번째 투표자인 김모씨(43·화정4동)는 “첫 번째 투표자라는 말을 들으니 뿌듯하다”며 “지역 얼굴을 뽑는 선거인 만큼 단 한 번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며 “본투표 열기도 뜨거웠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첨단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새벽부터 대기줄...광주 시민들 '한 표의 힘' 행사 지역 발전·민생 회복 염원 담아...인증샷 촬영도

환한 미소로 투표소 앞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는 시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손등에 투표 인증 도장을 찍거나 선거 안내 배너 앞에 서서 사진을 촬영하며 소중한 순간을 기록했다. 광주 동구 총장동 사전투표소(총장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와 북구 용

봉동 사전투표소(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유권자들은 새로 선출될 시장과 교육감, 구정장 등이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에 힘써주길 기대했다. 운동복 차림으로 투표소를 찾은 김영근씨(64·총장동)는 “항

상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회사 일정이 있어 둘째 날에 왔다”며 “투표를 마치고 무등산에 오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달업 종사자인 노현석씨(51·용봉동)는 “일 평균 배달 건수가 40건이었는데 최근에는 절반도 안 된다”며 “당선되는 후보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계림2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투표 시작 전부터 권리 행사를 위한 시민들의 길 줄이 이어졌다.

분투표일(6월 3일)에는 일정상 투표가 어려워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계림동 주민 송양근(75)·정충연(76·여) 부부는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며 “중앙 정치보다 주민들의 삶을 먼저 살피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표소 인근 거리에서는 각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 후보에게 한 표 부탁드립니다”를 외치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5:20	달림	20:51
맑음	19:41	달림	05:24



광주	17~30
목포	17~29
여수	17~28
순천	16~28
구례	16~29
광주	16~32
개남	16~32
신도	17~27
흑산도	17~24
진남	15~27
고흥	15~27
진도	16~27

목포	밀물(고)	02:54 / 14:34
	썰물(저)	08:09 / 19:54
여수	밀물(고)	09:19 / 22:03
	썰물(저)	03:36 / 15:16

거짓정보 입력 출입국 공무원

마네편 ○...헤어진 외국인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재판을 받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지난 29일 공전자기록등위탁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40대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연인 관계였던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유출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전산망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연락을 받고 싶어 그런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

허위 정보는 약 한 달 뒤 바로잡혔고, B씨 체류 자격에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2일 열릴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5·18홍보관 ‘오월, 오늘을 잇다’ 전면 정비

지하철 문화전당역 소재...‘기록 정거장’ 역할 기대

오월의 가치를 시민 일상 속에서 다시 마주할 수 있는 5·18홍보관 ‘오월, 오늘을 잇다’가 새 단장을 마쳤다.

5·18기념재단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문화전당역 내에 조성된 기존 홍보관을 전면 정비하고 새롭게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단순히 과거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1980년 5월의 기록이 오늘날 시민들의 삶과 민주주의 가치 속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는 총 3개 섹션으로 구성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입체적으로 연결한다.

첫 번째 섹션인 ‘오월, 오늘을 잇는 기억과 기록’에서는 1980년 5월 열흘간의 항쟁 과정을 조망한다. 아울러 1987년부

터 2024년까지 이어진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면들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배치해 역사적 연속성과 진실 규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섹션 ‘오월로 잇는 문장들’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도서 속 문장들을 발췌해 소개한다.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문장들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 문학으로 확장되며 오늘날 시민들에게 어떤 정서적 울림을 전하는지 보여준다.

세 번째 섹션 ‘투사회보 소개’는 1980년 당시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렸던 대자보이자 언론 역할을 했던 ‘투사회보’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다. 관람객들은 현장 QR코드를 통해 자신의 디지털 기기에 ‘투사회보 폰트’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성폭행·스토킹 혐의 추가

아르바이트 여성 동료가 교제 요구 거절하자 범행 살인 혐의도 구속기간 연장... 15일까지 신상 공개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23)에게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살인·살인미수·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던 장씨를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달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고,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행방을 몰랐던 장씨는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귀가 중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와 제지하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기는 범행 직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치량을 버린 뒤 인근 배수로에 흉기를 유기했으며,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인이 비워둔 원룸에 몰래 들어가 수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경찰 추적 관련 검색 기록과 함께 스토킹 신고 문자가 발송된 이후 기존 휴대전화를 버리고 과거 사용하던 공기계를 다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송치된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내외부 위원 7인이 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6월 15일까지 장윤기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46년 전 신군부 반인도적 국가폭력 실체 담아

5·18기념재단, 5·18국가폭력보고서 세미나

김형주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시민 입장에서 재구성 이태규 서강대 선임연구원, 군 문서·목격 진술 등 확인

5·18기념재단이 1980년 5월 계엄군의 진압전적과 헬기사격 등 국가폭력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열고, 5·18 진상규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재단은 지난 29일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실에서 ‘(가칭) 5·18국가폭력보고서’ 발간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군부 반란세력의 반인도적 폭력과 계

엄 확대 이후 군 투입 과정, 헬기사격의 폭 등을 중심으로 그간 축적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국가폭력의 구조와 실행 양상을 분석했다.

김형주 교수는 ‘신군부 반란세력의 반인도적 폭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존 진상규명 작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존 조사는 개별 사실 확인에 집중하면서 신군부 반란세력의 명령 체계와 실행, 은폐 구조를 통합적으로 규

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40여 년간 축적된 자료를 단순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시각에서 폭력의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공수부대는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의 주요 거점에서 학생 연행과 집단 구타를 자행했고, 김대중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도 이어졌다”며 “계엄 상황에서도 영장 발부나 연행 사유 고지 같은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남로·전남대·광주역 등 장소별 폭력 양상과 물리적 폭력, 의료 방해, 임매장 의혹 등 유형별 피해 실태를 분석해 오는 8월까지 추가 자료 수집과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29일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실에서 ‘(가칭) 5·18국가폭력보고서’ 발간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영기 서강대학교 서강국제한국학센터 책임연구원인 ‘내란을 준비한 밀실의 기록’이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태규 선임연구원은 “5·18민주화운동과 헬기사격 사건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헬기 기관총 사격에 대해 일부에서는 500MD 헬기의 성능만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헬기사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헬기사격 관련 지시와 명령은 계엄사령부에서 전교사령부와 항공대 지휘

관, 조종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하달됐고, 이는 군 작전문서상의 5월21일 항공작전 상황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또 “육군항공 기록에 등장하는 ‘찾은 비행’과 ‘아간 비행 임무’ 등을 볼 때 전남대 청 점령 이전에도 헬기를 활용한 항공작전이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5월27일 광주 재진입 과정에서도 육군항공부대

가 참여해 전일빌딩과 전남도청 일대에서 항공기 화기를 이용한 위협사격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종합토론에는 발표자들과 정경운 교수, 진지연 연구원 등이 참여해 보고서 권별 정정과 전체 서술의 체계성·통일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최정기 원장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자료 집적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까지도 5·18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는 만큼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칭) 5·18국가폭력보고서’ 발간 사업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기존 조사 성과를 학술적으로 계승·심화하고 민간 차원에서 5·18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총 11명의 조사·집필진이 참여해 6권 규모로 집필이 진행 중이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